

現代 女性 패션에 나타난 同一色彩 코디네이션의 特性⁺

- 파리, 밀란, 뉴욕, 런던 컬렉션 中心으로 -

權 惠 淑

詳明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The Characteristics of Identical Color Coordination In Contemporary Women's Fashion⁺

- Centered on the Collections of Paris, Milan, New York, London -

Kwon, Hae-Sook

Professor, Fashion Design Major, College of Design, Sang Myung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identical color coordin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modern female fashion color coordination as they appear in the 'Collections'.

Data collection of 2026 was done through review of 'prêt-à-porter Collections' of four cities; Milan, London, New York, Paris. Lastly, statistical analysis of frequency and χ^2 - test and also qualitative interpretation of identical color coordination characteristics were completed.

The main findings were; The color coordination of modern women's fashion produces a unified theme, or monochromatic harmony, through the use and coordination of identical colors. The clear contrast of tones portrays a strong image especially in achromatic color coordination, and through the use of texture variation, monochromatic color coordination becomes even more compelling. The tone variation, observed most often in monochromatic color coordination was the black and white contrast, which enhances the simplicity and clarity. Within chromatic color combinations, tone on tone color coordination was achieved by varying brightness. Furthermore, the observation of Faux Camaeu indicates that the coordination of different textures is used often in identical color coordination. While achromatic colors can lead to a hard and rough feeling, it also is compensated through the use of varying textures. In addition, adding variety of textures can add subtle interests to the simplicity of white.

Lastly, in all four collections, the chromatic identical color coordination was found more frequently than the achromatic. In Paris, N.Y. & London, the chromatic identical coordination was used more often than chromatic. Milán showed most use of achromatic coordination. The use of the tones showed similar trends in all four collections, with contrasting tone being used most often, followed by similar and identical tones.

Key words: identical color coordination(동일색상 코디네이션), chromatic identical color

⁺ 본 연구는 2004년도 상명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coordination(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monochromatic identical color coordination(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Color tone coordination(색채톤에 의한 코디네이션)

I. 서 론

최근 신세대들의 옷차림에는 저마다의 패션 의식이 강조되어 개성화, 자유화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간편화, 개성 창출, 생활 패턴의 변화, T.P.O에 의한 다양한 의상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다른 각각의 의복을 새롭게 조화시켜 입음으로써 좀더 자유롭고 개성적이며 세련된 자신만의 독특함을 연출하는 패션 코디네이션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이경순·김희섭, 2000).

색은 현대 문화 시각 정보의 중요한 구성인자로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옷맵시 감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허갑섭·이경화, 1999; 이경순·김희섭, 2000). 이러한 색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며, 특히 의복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색상이 배색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배색의 색채에서 느끼는 감정과 이미지는 단색에서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강한 감정을 전달하므로 의복에서는 단색이 지니는 이미지보다는 배색에 따른 이미지가 중요하다(장보경, 1998; 오태선·박희순, 2000).

배색을 할 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회롭게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배색의 원리 혹은 색채조화의 원리가 있다(전선정 외, 2000). 색채조화란 두 색 내지, 그 이상의 색들의 관련 효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미한다 (Itten, 1983). 이러한 색채조화의 개념은 의상에서의 배색에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이상의 색채를 사용하여 서로 돋보이게 하거나 조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을 색채코디네이션이라고 한다(김영신,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색채 조화에 대한 이해는 패션에서의 색채 배합, 즉 색채 코디네이션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은(김수윤, 2001; 김하니, 2001; 신윤희, 2001; 송금옥, 2000; 외 다수) 주로 패션 색채의 기호도나 유행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패션 코디네이션에 관한 몇몇 연구들(이송림, 1999; 임경순, 1999; 박정훈, 1990)은 이미지나 메이크업에 관한 내용들이며, 패션 배색에 대한 연구(유금화, 2002) 역시 색채 감성 이미지에 대한 것일 뿐으로 실제로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현대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에 관한 연구(권혜숙·심은아, 2004)가 진행되어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을 파악하였고 이 중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여성 패션컬렉션에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유형별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4대 주요 패션 중심지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복 디자인을 중심으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컬렉션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패션 디자인에서의 동일 색상끼리의 색채사용과 배색 방법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활용에 필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색채의 종류

색채는 크게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뉘어 진다. 무채색은 흰색과 여러 단계의 회색 및 검정색에 속하는 색채를 느낄 수 없는 무색광각의 색으로(장보경, 1986), 명도의 차이만 있지 색상, 채도는 없는 것이다. 즉 무채색은 가장 밝은 흰색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검정색 사이에 들어가는 회색의 단계를 만들어 그 명암의 차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가 있다(신상옥 외, 2001; 유송옥, 1997).

한편, 유채색은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색으로 색채를 느끼는 유색광각을 말

한다. 즉,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색 등과 그 중간색은 물론, 이러한 색들의 색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두 유채색으로 볼 수 있다(유태순, 2000).

2 색의 삼속성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색이 결정되며, 이것을 색의 삼속성이라고 한다.

색상이란 빨강, 노랑, 파랑이라는 색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로의 색을 다른 색과 구별하여 나타낸 것이다(Fujii, 1991). 이 용어는 자주 “색채”란 용어와 혼돈되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색상은 단일한 하나의 고유한 색을 의미하고 색채는 그것을 다양한 명도와 채도로 변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Wong, 1999).

명도란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색상면에서는 무채색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흑색은 0, 이상적인 백색은 10으로 하고 그 사이는 회색으로 되어 있으나 실용화된 색표에서는 이상적인 흑과 백은 불가능함으로, 9.5에서 1.0을 사용한다. 유채색의 명도를 나타내는 경우, 유채색의 밝음의 감각이 무채색의 기준과 동등한 곳의 명도기호를 사용한다(조필교 · 정혜민, 1998)

채도는 색의 순수한 정도 즉, 색의 툭하고 선명한 강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색상판에 나타난 색은 순색으로 회색이 가해질수록 탁해진다(유태순 외, 2000; 유송옥, 1997). 채도의 단계는 14단계로 가장 낮은 단계의 채도가 1이며 가장 높은 것이 14이다. 채도의 단계는 색상마다 다른데, 중명도의 색상은 단계의 폭이 크고, 고명도는 채도차의 폭이 좁다. 색입체에서 보면 채도는 명도축에서부터의 거리로 나타나는데 중심축인 무채색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채도번호가 높아져 순색에 이르게 된다(신상옥 외, 2001; 전선정 외, 2000).

3. 색채톤

색채에는 각각 명암, 농담, 순수함, 탁함이라는 색감

의 정도를 나타내는 색의 상태가 있는데, 이 색조를 톤(tone)이라고 한다. 톤은 일상생활의 느낌으로 명도와 채도의 복합개념이다. 우리가 색을 자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자각하게 된다.(신상옥 외, 2001; 오희선, 박학순, 2000).

톤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일본색연색채계(PCCS)의 톤 분류법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톤별로 색상을 분류하고 있다. 톤 분류법은 색상과 톤 2가지로 색채를 다루기 때문에 색채조화에서 색의 3속성이 의한 것보다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정해정, 2003). 톤의 특징을 살린 배색형식을 분류하면 크게, 동일한 톤에 의한 조화, 유사한 톤에 의한 조화, 그리고 대조톤에 의한 조화로 분류될 수 있다(조필교 · 정혜민, 1998).

4. 동일색상(identity)에 의한 코디네이션

패션의 색채코디네이션 중 가장 무난한 코디네이션 방법으로 한가지 색상으로 톤을 변화시켜 조화를 이루는 방법, 즉 명도나 채도가 다르더라도 같은 색상으로 통합하여 조화가 생기는 관계로 동일색상조화라고도 한다(유태순 외, 2000; 조필교 · 정혜민, 1998; 이경순 · 김희섭, 2000).

동일 색상코디네이션의 특징은 동일색끼리의 조합이므로 부드럽고 은화한 느낌이고, 잘 어울리기 쉽고 통일감이 있으며 차분한 분위기가 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밝고 어두운 명도 대비가 뚜렷하거나 선명한 채도를 가진 색을 조화시키면 강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돈되고 차분한 인상을 주어 무난한 코디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이인자 · 신효정, 2000).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색상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특징이 없어 보이고 약하고 단조로우며 평범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배색에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동일 색상코디네이션을 이루려면 명도대비를 크게 하여 명도대비로 변화의 중심을 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채도의 대비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채도가 대비되는 동일 색상은 분위기가 대비되어 서로의 장점을 잃

게 하기 때문이다(이은영, 2000).

5. 색채톤에 의한 색채 코디네이션의 분류 및 유형

1) 동일톤에 의한 색채조화

동일 톤의 배색은 색상이 다르더라도 채도의 공통성으로 인해 일정한 이미지를 정확히 전달하게 한다. 즉, 채도가 동일한 색의 조합일 경우 지각 시 보다 선명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유태순 외, 2000). 예를 들어, PCCS에서는 다른 색상끼리로 채도의 값이 같은 색끼리는 지각적으로 선명한 느낌이 일치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조필교 · 정혜민, 1998). 전반적으로 동일톤의 배색은 차분하며 일관된 통일성을 갖게 되며, 동일 색상의 조화는 정직이며 차분하고 시원시원해서 솔직하고 간결한 느낌을 준다(박필재 · 백숙자, 2001).

2) 유사톤에 의한 색채조화

유사톤의 관계는 바로 옆에 있는 톤의 관계이다. 기본적으로는 세로방향과 가로방향의 유사관계에서 배색을 생각하면 된다(조필교 · 정혜민, 1998). 즉, 서로의 유사톤 배색은 채도가 같고 명도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배색이고 가로의 유사톤 배색은 명도는 같고 채도에서 차이가 나는 배색이다(신상옥 외, 2001). 이 배색은 차분하며 안정되며 화합적이고 평화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박필재 · 백숙자, 2001).

3) 대조톤에 의한 색채조화

상호의 톤이 떨어져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차이가 크게 배합된 것일수록 자극성, 주목성이 강하다. 대조톤의 관계에서는 명도차를 강조한 관계, 채도차를 강조한 관계, 거기에 명도도 채도도 대조적 관계인 세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데 형태색과 바탕색, 강조색과 기조색 등과 같이 관계가 분명해서 강한 인상을 주는 배색으로 모두 대비효과가 강조된 관계가 특징이다. 이 배색은 강하면서도 생생하고 예리하며, 동적이며 화려하며 자극적인 이미지를 갖는다(박필재 · 백숙자, 2001).

4) 톤온톤(Tone on Tone) 코디네이션과 톤인톤(Tone in Tone) 코디네이션

(1) 톤온톤(Tone on Tone) 코디네이션

톤온톤이란 'تون을 겹친다'라는 의미로 보통 동색계의 농담배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유형에서의 색상은 동일, 유사, 인접 범위에서 선택하고, 톤은 두 가지 톤의 명도차를 비교적 크게 두어 유사톤에서 대조톤까지의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조필교 · 정혜민, 1998).

(2) 톤인톤(Tone in Tone) 코디네이션

톤은 같거나 가깝고 색상의 폭을 주어 얹어지는 배색으로 색상은 톤온톤 배색과 같으며 동일색상을 원칙으로 하고 인접 또는 유사 색상의 범위 내에서 선택한다(조필교 · 정혜민, 1998). 즉, 톤의 차이가 비슷한(특히 명도차가 가까운)배색 전반을 말하며 톤은 같지만 색상은 다른 비교적 자유로운 배색도 포함한다(신상옥 외, 2001).

이러한 톤인톤 코디네이션에는 색상차도 툰차도 거의 비슷하고, 희미하고 애매모호한 배색기법으로 언뜻 보기에 한 가지 색으로 보일 정도로 미묘한 색의 차이를 둔 '카마이유 배색'과 카마이유 배색보다 색상과 톤에 조금 더 변화를 준 '포 카마이유 배색'이 포함된다. 그러나 패션에서는 톤의 차이나 색상 차이가 적고, 은화한 조화감이 있는 배색을 총칭하여 포 카마이유 배색이라고 하며, 또한 서로 다른 소재의 조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묘한 색의 효과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조필교 · 정혜민, 1998; 박필재 · 백숙자, 2001).

I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 빈도와 특성은 어떠한가?

-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 빈도와 특성은 컬렉션별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의 선정 기준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패션 전문 잡지 선정은 발행 연도가 비교적 연속성이 있으며, 발행 부수가 안정적이며, 세계 유행의 흐름 속에서 트렌드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패션 전문 잡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GAP JAPAN CO., Ltd.,에서 발행하는 '컬렉션(COLLECTIONS)'지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고 해외 컬렉션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잡지이므로 이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0년 S/S부터 2002~2003 A/W 까지의 총 3년 동안의 기간으로 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3년 동안에 출간된 총 18권 가운데 4대 패션 중심지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 분석대상 선정 기준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대상의 선정기준은 첫째, 의상은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하였다. 둘째, 색상배합은 두 가지 색상 배색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동일한 하나의 색상이 사용되었더라도 각 아이템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색상처럼 보이는 경우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소재에 패턴이나 문양으로 인하여 색상을 한 두 가지로 정하기가 어려운 것들과 의복에 불어 있는 구슬이나 비즈, 그리고 소재의 특성상 한 가지 색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측정 도구

측정도구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업 규격 (KS A 0062-71 색의 삼속성에 의한 표시방법)에 준하여 색이 분류되어 있으며 섬유 산업체나 교육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색채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섬

유표준색도감이 사용되었다.

5. 연구의 절차 및 분석 유목 선정

다음에 언급되는 본 연구의 모든 단계와 과정에는 연구자들외 의상 전공자 2인이 함께 참여하였다. 사용될 색상과 톤의 선정은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색과 명도, 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차례의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기준을 선택하였다. 연구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채색에서의 동일색상 선정은 18권의 분석대상 중 무작위로 2권을 선정하여 그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54개의 유채색을 적용하여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동일색상에서의 색도차 1.25 정도는 두 색간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구별해 내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프린트물상에서의 색 차이를 감안해 볼 때 동일색상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유채색에서의 동일색상은 총 40색으로 선정되었다.

무채색의 경우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제시된 흰색에서 검정까지의 단계 모두를 무채색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분석에 사용될 톤의 단계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나타난 명도와 채도의 분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앞에서 선정된 40개의 유채색들 중 무작위로 7개의 유채색을 선택하여 각 색상들의 등색상면 분포를 중심으로 동일, 유사, 대조의 3단계 톤차이를 확실히 지각할 수 있는 톤의 단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동일톤은 명도 10도에서 채도 010~020, 유사톤은 명도 20도~50, 채도 020~080, 대조톤은 명도 60에서 그 이상, 채도 100에서 그 이상의 범위로 설정되었다. 이때, 무채색의 경우는 명도만을 중심으로 톤의 분류를 적용하였다.

셋째, 무작위로 2권의 컬렉션지를 선정하여 그 곳에 나타난 디자인들을 중심으로 설정된 색상과 톤의 범위를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분류된 유목들이 분석하려는 내용의 항목을 모두 포함시키면서도, 한 가지 내용 항목이 다른 유목에 동시에 중복되게 분류됨이 없이 오직 한 가지 유목에만 해당되도록 유목화 되어있고, 그리고 유목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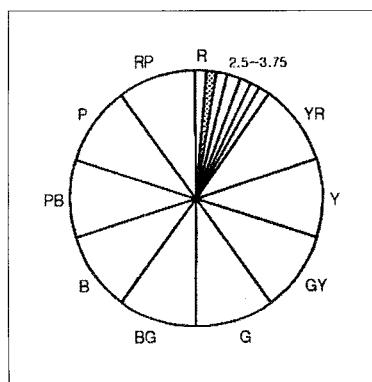
이 파악되었음으로 연구에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설정된 분석유목은 색채의 경우는 무채색과 유채색 그리고 톤은 동일톤, 유사톤, 대조톤이었다.

넷째, 색상과 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분류는 시각적 판단만으로도 분류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는 시각적 판단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나, 시각적인 판단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난해하거나 모호한 경우나 참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섬유표준색도감에 명시된 색상 비교의 방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6. 용어정의

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동일색상코디네이션

1) 유채색에서의 동일 색상코디네이션

본 연구에서는 동일색으로 분류된 40개의 색상들 각각의 등색상면 내에 있는 색채간의 배합, 즉 서로 다른 명도와 채도를 가진 동일 색상들간의 배합을 의미한다.

2) 무채색에서의 동일 색상코디네이션

무채색끼리의 색상배합을 말한다.

3) 동일톤

두 색의 배색이 명도차가 10일 때와 채도차가 010~020일 경우로 제한한다. 무채색에서의 배색에서 명도차가 10 이하일 때를 말한다.

4) 유사톤

두 색의 배색이 명도차가 20에서 50까지 채도차가 020에서 080까지일 경우를 말한다. 무채색에서의 배색에서 명도차가 20에서 50까지의 차이를 말한다.

5) 대조톤

두 색의 배색이 명도차가 60부터 그 이상, 채도차가 100에서 그 이상을 말한다. 무채색에서의 배색에서 명도차가 60이상부터를 말한다.

6) 톤온톤(Tone on Tone) 코디네이션

색상은 동일하고 톤은 유사하거나 대조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7) 포 카마이유(Faux Camaleu) 배색

동일한 색상에 동일한 톤이나 소재로 인하여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7. 자료분석

분석 유목별 분류의 분석자들간의 일치도를 검증한 결과 0.94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y)과 χ^2 -test가 사용되었다.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별 특성은 색상과 톤 별 발생빈도와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의 특성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분석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 빈도 및 특성

연구결과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유채색과 무채색)은 총2026개로 이 중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1094개(54%),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932개(46%)로 나타나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본 현대 패션에서는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보다 다소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

타났다(표 1).

<표 1>에 나타난 결과를 각각의 톤 별 발생빈도와 빈도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채색끼리와 무채색끼리의 코디네이션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경우는 유사톤이 590개(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조톤 405개(37.0%), 동일톤이 99개(9.0%)순으로 나타났으며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경우에는 대조톤이 487개(52.3%), 동일톤이 380개(40.8%), 유사톤이 65개(7.0%)의 순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톤을 사용하는 양상은 서로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이러한 결과는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경우에는 색상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차분

<표 1>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유형별·톤 별 발생 빈도와 빈도율

| 코디 네이션유형 | 톤 | 동일톤 | 유사톤 | 대조톤 | 합 계 |
|-------------|------|------|------|------|-----|
| 동일색상 (유) | 99 | 590 | 405 | 1094 | |
| | 9% | 54% | 37% | 100% | |
| | 21% | 90% | 45% | 54% | |
| 동일색상 (무) | 380 | 65 | 487 | 932 | |
| | 41% | 7% | 52% | 100% | |
| | 79% | 10% | 55% | 46% | |
| 합 계 | 479 | 655 | 892 | 2026 | |
| | 24% | 32% | 44% | 100% | |
| | 100% | 100% | 100% | 1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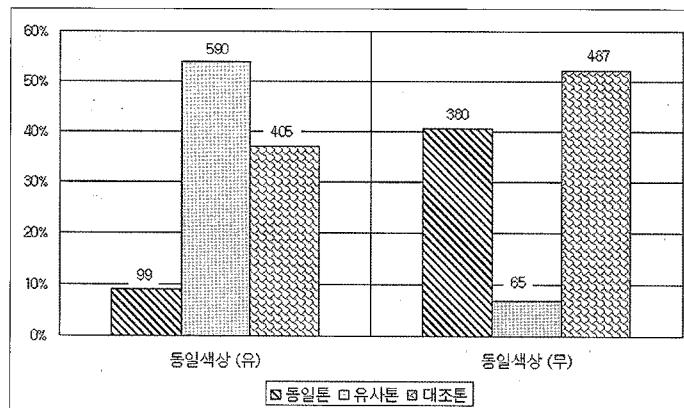
하며 안정되어 보이는 이미지 위주로 사용되고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경우에는 강한 대비를 위주로 색채배합을 시도함으로써 생생하고 예리하며 자극적인 이미지가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تون온톤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를 살펴본 결과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서는 총 995개(64%)로 나타났고 무채색의 동일색상은 총 552개(36%)로 나타나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서의 발생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그림 3). 이것은 동일색상의 경우 유채색은 톤의 차이를 어느 정도 두고 색채 배합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명도에서만 차이를 줄 수 있는 무채색은 유채색보다는 효과가 적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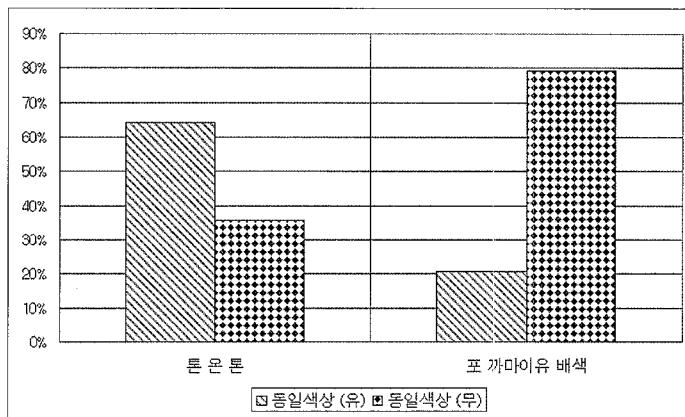
포 까마이우(Faux Camaleu) 배색은 유채색의 동일색상이 총 99개(21%)로 나타났으며 무채색의 동일색상은 총 380개(79%)로 나타나 무채색에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그림 3). 이것은 무채색의 경우 색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재 변화의 효과가 유채색 배합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무채색의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나 단조로움이 소재의 차이로 인하여 보다 좀더 부드럽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컬렉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색채 사용 및 배색 특성과 이미지 등의 내용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하여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채색에 의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동일함에서 오



<그림 2>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톤 발생 빈도율



<그림 3>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톤온톤과 포 까마이유 배색 빈도

는 고유한 통일감을 살릴 수 있도록 색채를 코디네이션하거나 동일한 색상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톤에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사진 1>과 <사진 2>에서처럼 동일색상을 유사한 톤들로 배합함으로써 무난하면서도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으로 통일감을 살릴 수 있도록”(신상옥 외, 2001)하거나, <사진 3>과 <사진 4>에서처럼 채도차나 명도차를 크게 한 대조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으로 동일색상끼리의 코디네이션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지루한 이미지를

보다 흥미 있고 선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무채색의 경우는 톤의 확연한 대비를 통한 강한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혹은 동일함을 소재의 변화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사진 5와 사진 6>).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색채 사용 및 색채배합에서 표출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조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은 <사진 5>에서와 같이 주로 검정과 흰색의 코디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하고 깔끔하며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



<사진 1>
동일(유)유사톤
00 S/S London
(톤온톤)

<사진 2>
동일(유)유사톤
02 S/S London
(톤온톤)

<사진 3>
동일(유)대조톤
02 S/S Paris
(톤온톤)

<사진 4>
동일(유)대조톤
0102 AW Milan.
(톤온톤)

<사진 5>
동일(무)대조톤
00 S/S Milan
(톤온톤)

<사진 6>
동일(무)동일톤
00 S/S NY
(포 까마이유)

내고 있었으며, 동일톤에 의한 코디네이션의 경우에는 <사진 6>에서처럼 검정색끼리의 코디네이션을 위주로, 그리고 소재는 두께나 텍스츄어의 차이를 위주로 코디네이션 되어 있어 검정색이 지닌 고유한 엄숙함과 강렬함 그리고 신비한 이미지를 살리면서도 소재의 변화로 지루함이나 딱딱함을 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 발생빈도와 특성은 컬렉션(도시)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패션의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가 컬렉션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도시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chi^2 = 21 p < .05$) 나타났다(<표 2>).

<표 2>에 나타난 컬렉션별 발생 빈도와 순위를 살펴보면 파리 컬렉션은 738개(36%)로 나타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사용이 다른 컬렉션에 비해 많은 것으로

<표 2>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의 컬렉션 별 발생빈도

| 도시별 유형 | 동일색상 (유) | 동일색상 (무) | 합 계 | Chi-Square 검증 |
|-----------|-------------|-------------|------|---|
| 파 리 | 411 | 327 | 738 | $\chi^2 = 17.4908$ $df = 3$ $p < .05$ |
| | 56% | 44% | 100% | |
| | 38% | 35% | 36% | |
| 밀 란 | 293 | 318 | 611 | |
| | 48% | 52% | 100% | |
| | 27% | 34% | 30% | |
| 뉴 욕 | 181 | 156 | 337 | |
| | 54% | 46% | 100% | |
| | 17% | 17% | 17% | |
| 런 던 | 209 | 131 | 340 | |
| | 61% | 39% | 100% | |
| | 19% | 14% | 17% | |
| 합 계 | 1094 | 932 | 2026 | |
| | 54% | 46% | 100% | |
| | 100% | 100% | 100% | |

나타났고 그 다음은 밀라노 컬렉션이 611개(30%)로 나타나 두 번째로 많은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뉴욕 컬렉션은 337개(17%), 런던 컬렉션에서는 340개(17%)로 동일한 발생율로 나타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을 비교적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발생율로 살펴보면 우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파리 컬렉션 411개(38%), 밀라노 293개(27%), 런던 209개(19%), 뉴욕 181개(17%) 컬렉션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파리 327개(35%), 밀라노 318개(34%), 뉴욕 156개(17%), 런던 131개(14%)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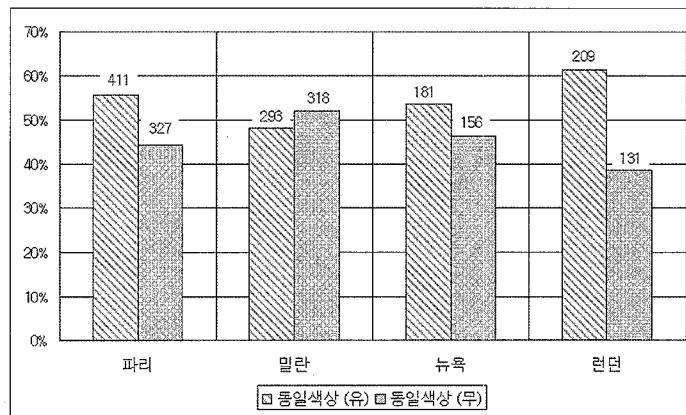
<표 2>의 결과를 컬렉션별로 코디네이션 유형에 따른 발생율을 비교해 보면 밀라노를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서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유형별 발생 빈도율의 차이는 파리, 밀라노, 뉴욕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런던은 다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이러한 <표 2>와 <그림 4>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파리에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사용율이 높고 코디네이션 유형별 사용 정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나라의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성격을 지닌 디자인들을 폭넓게 포용하고 있는 만큼 가장 무난하고 많이 사용되는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밀라노는 다른 컬렉션과는 달리 유채색의 동일 코디네이션보다 무채색의 동일 코디네이션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밀라노 컬렉션에서 무채색의 흰색(W)과 라이트 그레이(LGy)의 분포가 많이 나온다는 김수윤(2001)의 연구결과와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런던과 뉴욕 컬렉션은 밀라노와 파리 컬렉션에 비해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발생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유형별 차이는 런던은 차이가 많은 반면 뉴욕은 두 유형 모두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특히 런던은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다른 컬렉션에 비해서도 비교적 낮은 빈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는 런던 컬렉션의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보다 다이나



<그림 4> 컬렉션별로 본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율

믹하고 변화가 많은 색상 코디네이션과 색채 코디네이션의 사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패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색상(G, BG, B)의 계열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선행연구의 결과(김하니, 2001)로도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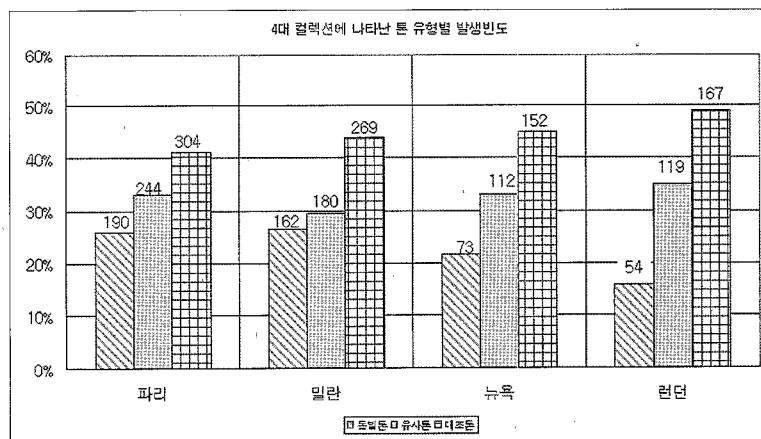
반면 뉴욕은 유형별 발생율 차이도 가장 적게 나타나고 동일색상 발생률도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디자이너들은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들을 주로 선보이고 있음으로 동일한 색상의 조화로는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으로 보다 다양한 색상의 조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컬렉션별로 톤의 발생율을 살펴본 결과 각 컬렉션은 톤별로 유의한 차이($\chi^2 = 18.6813$ df = 6 p < .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각 컬렉션별로 톤 발생율을 중심으로 나타내 보면 <그림 5>와 같다.

톤 별 발생은 4대 컬렉션이 모두 공통적으로 대조톤, 유사톤, 동일톤 순으로 나타나 현대 여성 패션에서는 동일색상을 조합시킬 경우 대조적인 톤을 중심으로 한 색채 효과를 중점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 유형별 사용 정도는 컬렉션별로 다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런던은 대조톤의 발생율이 매우 높은 반면 동일톤의 발생율은 매우 낮고 뉴욕도 각 톤별 발



<그림 5> 4 대 컬렉션에 나타난 톤 유형별 발생빈도

생율의 차이가 비교적 많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파리는 각 톤별 발생율의 차이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으며, 밀라노는 동일톤과 유사톤의 사용정도는 유사하였으나 대조톤의 사용율과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컬렉션별로 유채색의 동일색상에서 톤의 변화를 본 결과 유의한 차이($\chi^2 = 11.776$ df = 6 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컬렉션별로 무채색의 동일색상에서 톤의 변화를 본 결과도 유의한 차이($\chi^2 = 10.1922$ df = 6 p > .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난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과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특성을 알아보고, 컬렉션별, 계절별,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대 여성 패션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발생빈도와 특성은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동일함에서 오는 지루함이나 단조로운 단점을 깨고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에는 더 적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동일 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 유형별로 색상 배합의 양상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전반적인 특성은 동일색을 유사톤에 의해 배합하는 식의 동일함에서 오는 고유한 통일감을 살리고 있거나, 동일한 색상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도록 채도차나 명도차를 크게 하여 평범하고 지루할 수 있는 이미지를 보다 흥미 있고 선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톤온톤 코디네이션의 발생율은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서의 발생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동일색상의 경우 유채색은 톤의 차이를 어느 정도 두고 색채 배합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명도에서만 차이를 줄 수 있는 무채색은 유채색보다는 효과가 적기 때문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은 검정과 흰색의 배색 등과 같은 톤의 확연한 대비를 통한 강하고 깔끔하며 선명한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소재의 변화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동일톤에 의한 무채색끼리 배합의 경우에는 검정끼리의 배합을 위주로 '도시적이고 세련되고 차분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소재의 변화로 지루함이나 딱딱함을 피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었다.

포 까마이유 배색은 무채색에서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무채색의 경우 색상이 없음으로 인하여 소재 변화의 효과가 유채색 배합에서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무채색의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나 단조로움이 소재의 차이로 인하여 보다 좀더 부드럽거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처럼 동일한 색상의 색채조화시 유채색을 선택하였을 경우는 유사톤을 중심으로 무채색을 선택하여 색상을 조화시킬 경우는 대조톤을 중심으로 색채조화를 시도함으로써 유채색과 무채색이 지닌 각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색채 코디네이션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의 유형별 발생 빈도와 특성은 컬렉션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컬렉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라노를 제외한 모든 컬렉션에서는 유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이 무채색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컬렉션별로 발생 빈도율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 파리, 밀라노, 뉴욕은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런던은 다소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컬렉션별로 톤 유형의 사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에서의 톤 유형별 발생 빈도는 컬렉션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컬렉션 모두에서 대조톤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유사톤 그리고 동일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동일색상의 코

디네이션은 컬렉션의 특성에 따라 색상의선택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하나 대체로 유채색을 더 많이 사용하고 톤은 대조적인 톤을 중심으로 한 색채 효과를 중점적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에서의 동일색상 코디네이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한 패션 디자인에서의 색채사용과 배색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톤의 단계를 3단계로만 제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음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톤의 단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도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들은 단일한 색상 배합에서 오는 다양한 이미지의 제한성을 매우 다양한 톤으로의 변화를 함께 시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색채 코디네이션들을 창출해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1) 권혜숙, 심은아(2004). 현대 여성 패션에 나타난 색채 코디네이션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분석. *한국 의상디자인학회지*, 6(3), pp.130-152.
- 2) 고을한, 김동숙(2000). 디자인을 위한 색채계획, 미진사.
- 3) 김수윤(2001).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신(2001). 토탈 패션 코디네이션, 형설출판사.
- 5) 김윤선(1999). 색채이미지에 의한 복식 디자인의 배색 계획 -1999/2000 F/W 여성복 유행 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김하나(2001). 1990년대 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다나 후이지 저, 임경숙 역(1991). *패션 코디네이트 와 이미지칼라진단*, (주)그래픽사.
- 8) 라사라(1999). 컬러 코디네이션, 신미문화정보.
- 9) 박정훈(1990). 코디네이션의 연출에 관한 연구 -개성연출을 위한 토탈패션으로서의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박필재, 백숙자(2001). 컬러코디네이터를 위한 색채학 입문, 형설출판사.
- 11) 송금옥(2000).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신상옥, 오경화, 이선희, 나영주(2001). *현대패션과 의생활*. 서울: 교문사.
- 13) 신윤희(2001).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컬러코디네이션의 상관성 분석 연구 -'90년대 여성의 패션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양리나, 최나영(2000). *패션 연출*, 문왕사.
- 15) 오희선, 박희순(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 코디, 경준사.
- 16) Itten,Y. 저, 김수석 역(1983). *색채의 예술*, 지구문화사.
- 17) Wucius Wong 저, 유관호 옮김(1999). *색채 디자인의 원리*, 도서출판 청우.
- 18) 유금희(2002).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 유송옥(1997). *복식의장학*, 수학사.
- 20) 유태순, 조기여, 배현숙, 이화순, 신지현, 김영란(2000). *색채학 -이론과 실제-*, 도서 출판 성화.
- 21) 유태순, 조기여, 박휘숙, 조은영(1999). *패션 코디네이션의 이해*, 도서출판 학지사.
- 22) 원경미(2001). 국내패션 업계에서 활용하는 색명과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경순, 김희섭(2000). *의생활과 패션 코디네이션*, 교문사.
- 24) 이승림(1999). *샤넬이미지를 통한 패션 코디네이션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이윤주(1992). *복식에 있어서의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6) 이은도(1996). *색채이미지와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이은영(2000). *복식의장학*, 교문사.
- 28) 이인자, 신호정(2000). *패션 마케팅 & 코디네이션*, (주)시공사.
- 29) 임경순(1999). *현대 패션코오디네이션 연구 -샤넬과 스카이아파렐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장보경(1998). 한국 패션의 유행색 정보기획 사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전선정, 최희정, 이귀영, 양선미, 문윤경 공저 (2000), 토템 코디네이션, 청구 문화사.
- 32) 정해정(2003). 컬러코디네이션, 도서출판국제.
- 33) 조셉 알버트 저, 서재행 역(1974). 실험에 의한 색 채구성, 일지사.
- 34) 조필교, 정혜민(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전원문화사.
- 35) 최윤희(2001). 유행 예측색의 색명과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주선형(2000.) 색채와 질감에 의한 패션 소재 이미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7) 허갑설, 이경화(1999). 패션 연출 방법에 관한 연구 –직장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23(1), pp. 54-65.
- 38) (재)한국색채연구소 저(1999), 색채III, 한국색채연구 사업.
- 39) Collection, '00/' 01, S/S, I,II,III, A/W I,II,III, '01/' 02 S/S, I,II,III, A/W I,II,III, '02/' 03 S/S I,II,III, A/W I,II,III, GAP JAPAN Co., Ltd.,

(2004년 10월 12일 접수, 2004년 12월 15일 채택